교통단속 삼매경에 빠진 제주경찰

지난 한 해 범칙금·과태료 147억 이상 부과
'속도 위반' 107억… 과속 의한 사고는 증가
운전자들 "경찰 도로변에 숨어서 과속 단속"

지난해 제주에서 걷힌 교통 범칙금·과태료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과속에 의한 교통사고는 되레 늘어나는 등 '사고 감소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6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과된 교통 범칙금·과태료는 147억 4100여만원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2019년 120억여원, 2018년 114억여원보다도 20억~30억원 이상 더 부과된 것이다.

지난해 무인단속 카메라 등에 의해 부과된 '과태료'는 약 142억8900만원이었고,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단속돼 부과된 '범칙금'은 약 4억 5100만원이었다. 과태료 중에선 '속도 위반'이 22만2293건·107억2800만원, 범칙금에서는 '안전띠 미착용'이 2643건·79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도 범칙금·과태료 부과액이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17일부터 제주 도심권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추는 등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시행되고 있어서다.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단속이 활발하게 이뤄졌지만 정작 교통사고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18년 4239건(사망 82명), 2019년 4412건(사망 66명), 지난해 4030건(사망 68명) 등 눈에 띄는 감소세를 기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과속'에 의한 교통사고는 2017년 17건에서 지난해 38건으로 되레 2배 이상 늘었다.

최근 번영로(표선→제주시)를 운행한 이모(36)씨는 "봉개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경찰관이 숨어서 단속 카메라를 도로 쪽으로 들이 밀고 있었다. 단속을 하고 있다는 안내문은 없었고 커브를 돌자마자 단속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한 앞차들이 급정거를 하면서 위험한 순간이 연출됐다"며 "단속도 좋지만 사고를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단속은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구간 단속 확대와 이동식 과속단속 및 제한속도 하향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교통사고 없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계절별·테마별 교통안전대책도 수립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음주사고후 도주 60대 집유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쳐 중상을 입히고 현장에서 도주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새벽 0시27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B씨를 들이 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9%였으며, 차에 치인 B씨는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심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70대 해녀 심정지로 숨져

추자도에서 심정지 응급환자가 발생, 해경에 의해 긴급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4일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10시53분쯤 추자도 모진이해변 갯바위에서 해녀 김모(77)씨가 의식없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헬기를 급파해 김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호국영령 앞에 선 유족들 제66회 현충일인 6일 제주시 충혼묘지를 찾은 유족들이 묘비 앞에서 제를 지내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있다. 강희만기자

"자유민주주의 수호 선열들의 뜻 이을 것"

어제 제66회 현충일 추념식

원희룡 제주지사는 6일 현충일을 맞아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과 유족들께 정성을 다하고,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했던 선열들의 뜻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오전 제주시 신산공원 내 6·25 참전기념탑 앞에서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추념식에는 원희룡 지사, 좌남수 의장, 이석문 교육감 등 기관·단체장 50여명이 참석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추념사를 통해 "우리 선열들은 나라가 위기에 놓였을 때 의병이 되어 싸웠고,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독립 만세를 외치며 일제에 맨몸으로 맞섰다"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 추모와 존경의 마음을, 유가족께는 깊은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12월 한라산 아흔아홉골에 국립묘지가 개원될 예정으로 읍면 충혼묘지와 마을 공동묘지 등지에 모셔졌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을 비로소 예우와 품격에 맞게 모실 수 있게 됐다"며 "지난 10여년간 보훈단체의 숙원이었던 보훈회관 건립사업도 올해 드디어 첫발을 내딛는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우리 부모님들은 척박한 땅에서 4·3의 아픔을 딛고 평화의 섬을 일궜고, 우리 이웃들은 코로나19에 맞서 의병이 돼 방역 현장을 지키고 있다"며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전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신임 제주지검장에 이원석 검사 임명

신임 제주지검 검사장에 이원석(사진) 수원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법무부는 오는 11일자로 단행되는 대검검사급 검사 41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4일 발표했다.

신임 이 지검장은 지난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27기)을 수료하고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발령되며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3부 부부장검사, 제주지방검찰청 형사 2부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장검사,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1월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됐고, 이번 인사에서 제주지검장으로 전보돼 자리를 옮겼다.

한편, 박찬호 제주지검장은 광주지검 검사장으로 발령됐다.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과로사 여전… 부당 분류작업 거부"

택배노조 기자회견

오는 8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의 최종 합의를 앞두고 택배노동자들이 택배회사가 분류작업을 책임지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제주지부(이하 택배노조 제주)는 지난 4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분류 작업을 중단하겠다"며 "택배회사가 반대하고 거부한다면 싸움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택배노조 제주는 "분류작업은 여전히 노동자의 몫이고, 이에 노동자는 쓰러지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하루 앞둔 7일부터 부당한 분류작업을 멈추고 과로사를 막기 위한 마지막 고비를 반드시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택배노조 제주는 "8일 사회적 합의에 따른 최종회의에서 과로사를 제대로 방지할 수 있는 합의가 성립되길 간절히 원한다"며 "택배회사가 거부하면 싸움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민성기자

남방큰돌고래 사체 발견

지난 5일 오후 6시21분쯤 제주항 신항 방파제 북쪽 약 10m 해상에서 돌고래 사체가 발견됐다.

해경은 발견된 돌고래의 무게가 약 150kg에 달해 인양이 불가능함에 따라 제주항 서부두 방파제에 있는 해양경찰 푼툰(연안구조정 계류장)까지 예인했다.

고래연구센터가 확인한 결과 해당 돌고래는 길이 250㎝·둘레 90㎝·무게 약 150kg의 수컷 남방큰돌고래로 밝혀졌다. 송은범기자

렌터카-SUV 충돌… 8명 중경상 5일 오후 1시42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일주서로 교차로에서 렌터카 승용차량과 SUV가 충돌해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Silver Smile
노인학대신고
24시간 상담전화
1577-1389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www.sgpnoin.org
운영법인 : (사)대한노인회서귀포시지회

전기(산업)기사 / 전기기능사(필기+실기)취득과정
대 상 | 실업자·재직자·일 반
교육기간 | 상시모집
교육시간 | 19시~22시
교육내용 | 전기(산업)기사 및 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대비
문 의 | 725-5545

커피 바리스타 과정
대 상 | 실업자·재직자·일 반
교육기간 | 상시 모집 중
교육시간 | 오전, 오후, 야간 매일 3시간씩
교육내용 | 자격증 취득 및 창업 관련
문 의 | 725-5545

컴퓨터(OA관련, 전산회계) 과정
대 상 | 실업자·재직자·일 반
교육기간 | 상시 모집 중
교육시간 | 오전, 오후, 야간 매일 3시간씩
교육내용 | OA관련(사무자동화, ITQ, 컴활2급), 전산회계
문 의 | 725-5545

2021년 제1회 전기기능사실기 9명 응시 9명 합격(100%)
문*민, 한*남, 강*열, 김*현, 옥*환, 이*석, 정*완, 최*영, 최*혜(총9명)
제주직업전문학교
제주시 서사로 81 (삼도1동) 중앙여중 정류장, 진영마트 맞은편
064)725-5545 http://www.jejuvs.co.kr

그랜드 보청기
그랜드보청기 확장이전 파격할인!!
구매고객 20만원상당 녹용 선착순증정
2021년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2021 HBTMBA 히트브랜드 대상 1위
BLACK SWAN 초소형보청기
동영상 청취가능
「전문청능사」 어플리케이션 소리조절 보청기로 음악청취/원격 비대면 조절
보청기 가격의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삼촌들 혼저 전화 주십서! 기다렸수다!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80만원대부터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에 그랜드보청기 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그랜드보청기 전용 주차장 (무료주차)
한라일보 서사리 사거리 삼겹구이 2층
제주시 서광로 225 2층
서사라 사거리 제주시버스터미널 그랜드보청기

조경 · 원예 · 화훼
인테리어 · 건축 · 토목용
화산석(송이)/붉은색, 흑색
중국산 10kg 단위포장(중립 5~10mm, 대립 10~20mm)
백자갈, 회색자갈/오색자갈(어항, 인테리어용)
중국산 10kg 단위포장(20~30mm, 30~50mm)/(5~10mm)
마 사 토
국산 20kg 단위포장(소립 3~5mm, ,중립 5~10mm)
바크(친환경 소나무 바크, 조경용 멀칭재, 원예화분용)
국산 35L 단위포장(중립, 대립)
상토, 산야초, 휴가토, 녹소토, 적옥토, 퍼라이트
덕산조경원예자재(도, 소매)는
도내 최저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HP : 010-5568-2936 · T/F : 064)744-8828
E-mail : duksanjo@naver.com · 주소 : 제주시 오광로 194(노형동)